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백종훈	학번	[redacted]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바콜로드
파견대학	웨스트네그로스대학(WNU)	기간	2014. 12. 21(일) ~ 2015. 2. 14(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기숙사인 South Campus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Language Of Institute 부설기관에서 연수를 받았음. 오전에는 이 곳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기숙사에 있는 OKEA English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음. 대학 규모는 중간 정도 되며 카톨릭 대학교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며 한국학생도 복장 제한이 있음. 시설은 필리핀이 열대 기후인데 냉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 강의실은 1:1 수업, 4:1 그룹수업 강의실이 따로 있음.
수업	수업은 입학시험을 치루고 결과 점수로 반을 배정받아 수업을 진행함. 입학시험은 Grammar, Writing 및 Interview 테스트를 받음. 수업형식은 Grammar, Pronunciation, Writing, Discussion, Expression, Speaking 6과목으로 되어있고 Grammar, Discussion 두 수업을 4:1 그룹수업으로 진행, 나머지 4과목을 1:1수업으로 하루에 6시간 수업을 들음. 모든 수업은 영어 대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튜터들의 영어 발음은 각각 다름. 필리핀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Pronunciation 튜터를 제외하고 특정 발음에 필리핀 억양이 섞여있음. 수업시간은 오전 9시~12시, 오후수업 3시~6시 ① Grammar 한국에서 배웠던 비슷한 문법 내용을 영어 수업으로 진행하였음. 한국에서 배우는 방법과는 달리 예문을 직접 만들어 말해보면서 보다 쉽게 문법을 익힐 수 있었음. 교재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각 챕터별로 과제를 내줌. ② Pronunciation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대부분 발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함. 발음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듣기 실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음. 교재에 있는 챕터별 발음을 배우고 단어, 문장을 읽으면서 튜터가 교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음. ③ Writing 글을 쓰는 방법, 글의 형식에 대한 수업으로 개인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에세이를 쓰기 보다는 교재 위주로 진도를 나감. ④ Discussion 4:1 그룹수업으로 교재에 있는 주제에 대해 튜터와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함. 스피킹 실력 향상 에 도움이 되었음. ⑤ Expression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Idiom을 배움. 배워놓으면 나중에 실생활 영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각 주제별로 단어가 정리되어있고 단어학습 후 퀴즈를 보거나 중간에 테스트를 봄.
Activity	보라카이 섬으로 3박 4일간의 여행 일정이 있는데 소요 경비는 기본 12,5000원 + 자율경비 합해서 평균 25만원 정도 소요됨(해양스포츠 엑티비티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짐). 여행일정으로 첫째 날 오전에 출발하여 7차, 배를 타고 7시간정도 소요 후 오후에 도착하여 단체 식사 후 자유시간을 즐겼음. 둘째 날에는 스노클링, 줄낚시를 하고 오후에 여행 기본경비에 포함된 해산물 식사를 함. 오후에는 해양스포츠(제트스키, 플라잉 피쉬, 세일링 보트)를 신청자에 한해 즐길 수 있음. 위의 해양스포츠는 한국에서 즐길 수 없기 때문에 3개 모두 신청했는데 제트스키, 플라잉 피쉬는 25000원, 세일링 보트는 10000원 이하로 즐길 수 있음. 특히 제트스키는 한국에서는 돈을 내도 못 타기 때문에 꼭 타볼 것을 추천함. 셋째 날 오전에는 신청자에 한해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데 50000원정도 소요됨. 스쿠버다이빙 또한 한국에서 즐길 수 없는 엑티비티이기 때문에 제트스키와 스쿠버다이빙은 꼭 해볼 것을 추천함.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즐기고 다음날 오전에 출발하여 오후에 복귀하였음. 준비물은 낮에 해안가에서 걷는 시간이 많다보니 선크림을 충분히 가져가는 것이 좋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직불카드를 가져가 ATM기에서 뽑을 수 있음. 보라카이 식당은 각종 패스트 푸드점도 많고 다른 외부 식당은 살고 있던 바콜로드보다 약간 비싼 편이었음.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다녀올 당시 필리핀이 우기였는데도 상당히 더웠음. 아침저녁으로는 가끔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하며 비가 종종 내려 우산을 챙겨 가면 좋음.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므로 긴 소매 옷 하나 정도 챙겨가는

	것이 좋음. 에어컨 바람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감기에 걸렸음.
안전	바콜로드는 안전한 도시라고 들었지만 밤 9시 이후에는 어두운 곳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음. 실제로 연수 당시 한국인 학생 한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음. 늦은 시간에는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숙소	기숙사는 3인실로 되어있으며 책상, 에어컨, 온수시설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갖춰져 있음. 룸메이트로 다른 외국 학생들과 지낼 수 있어 영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주 2회 방 청소, 침대 시트 교체를 해주며 세탁서비스를 제공함.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 외부식당 (O) 기타( ) 기숙사 시설 내에 카페테리아가 있고 식당에서 1일 3식을 한식으로 제공함. 맛은 처음에는 안 맞을 수 있으나 괜찮은 음식이 종종 나옴. 외부 식당으로 한식당이 몇 곳 있지만 가격이 한국과 비슷함. 필리핀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았음. 외부 식당은 저렴한 편이며 한 끼에 평균 3000원, 약간 비싼 음식은 5000원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음.
교통	오전에는 밴을 타고 10~15분 정도 걸리는 West Negros 대학에서 3교시 수업을 듣고 밴을 타고 기숙사로 복귀함. 시내 대중교통으로는 트라이시클, 택시, 지프니가 있는데 주로 지프니를 많이 이용하였음. 가격은 원화로 15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함. 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정도로 야간에 주로 이용하였음. 야간에는 트라이시클을 타지 않는 것이 좋음.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1,281,280	출국 전 사전 납부
보라카이여행비	300,000	숙박, 교통, 기본 액티비티
식비	350,000	외출시 식비
교통비	50,000	택시, 지프니
기념품	60,000	화장품, 기호식품, 주류
기타	40,000	생필품, 환전 수수료
합계	8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필리핀은 날씨가 덥고 햇빛이 세다보니 선크림을 항상 바르고 다녔는데 다른 화장품들은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선크림은 현지 제품의 질이 한국보다 좋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선크림을 충분히 가져 오는 것이 좋음. 선크림 뿐만 아니라 로션도 연수기간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져오는 것이 좋고 다른 세면용품은 현지에서 한국과 비슷한 제품을 살 수 있음.

현지 날씨가 매우 더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긴 소매 옷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가끔 태풍이 불거나 아침저녁으로 쌀쌀할 때가 있어 긴 소매 옷을 꼭 챙겨가는 것이 좋음. 실내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세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움. 감기약, 두통약도 충분히 챙겨가는 것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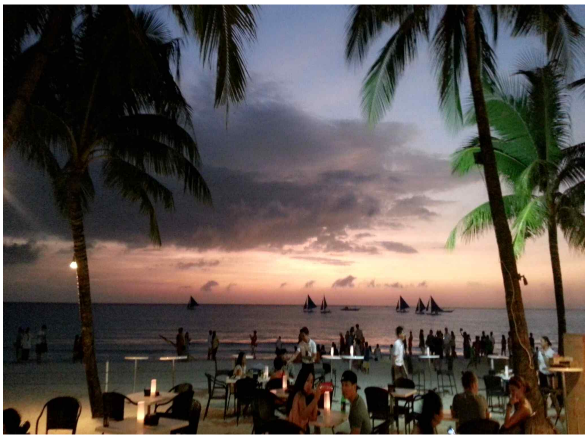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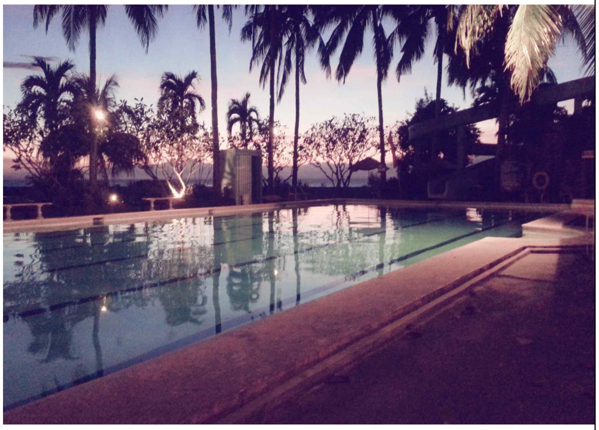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번 연수의 목적으로 '영어를 유창하게는 못하겠지만 자연스럽게라도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연수에 지원했었습니다. 토익이나 다른 어학 성적보다는 '스피킹 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필리핀에서 영어로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영어를 잘하는 일본 룸메이트와 생활하게 되어 같이 생활하며 늘상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고 평소에 듣던 영어와도 완전히 달라 애를 먹었지만 날이 갈수록 머리에서 영어를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할 때도 질문을 수도 없이 하며 대화 위주의 수업을 하였고 어느 정도의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서 약간 의아했던 것이 출발 전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를 상당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튜터와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길거리에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면 잘 모르거나 영어를 아주 짧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필리핀 어느 곳에 가도 영어를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지인들은 일상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발음 또한 필리핀 억양이 섞여있어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모든 과목 하나하나가 도움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영어회화 수업과는 달리 1:1 방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와 익숙해 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간은 2달이었는데 1달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제가 다녀온 2달 코스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미국권이나 호주 쪽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필리핀에서 먼저 배우고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영장 가는길		보라카이 sunset
일본친구들과		기숙사 내부
		
기숙사 전경		팔마스 수영장